

세 가지 선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선물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황금은 마음을,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몰약은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천국 열쇠' 증명

4대 대형서점에서 12월 24일부터 이재록 목사의 신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구입하는 독자에게 '천국 열쇠' 휴대폰 고리를 증정한다.

"한국은 믿음의 고향, 만민중앙교회는 믿음의 성지"

우리 교회에 믿음의 동지를 둔 해외교구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신앙생활의 기쁨을 들려준다.

"나는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 도박판을 비롯한 헛된 세상에서 떠돌다 돌아왔지만 다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섬김 인생을 살고 있는 김삼손 집사의 간증기

만민뉴스

제410호 2009년 12월 2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분, 만민중앙교회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에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천 명의 성도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점등 버튼을 누르자 일시에 모든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다

2009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전 세계 생중계 및 녹화중계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점등 버튼을 누르고 있다.

2009 성탄트리 점등식이 지난 12월 11일 오후 9시 50분, 우리 교회 본당 앞에서 열렸다. 조대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점등식은 부산 만민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의 대표

기도 후 전 성도가 "믿음, 소망, 사랑"을 외치자 폭죽과 함께 성탄트리가 점등됐다. 그 순간 임마누엘, 샬롬, 나사렛 성가대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며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어 김혜경 찬양선교사의 '벨리즈나비다'(기쁜 성탄절) 특송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성탄 축하 메시지가 있었다. 이 메시지는 "2009년 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져 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성탄절은 매우 기쁘고 행복한 날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기쁘고 설레인다"며 "봉사로 수고한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해마다 동참해 온 시설관리국 박근식 집사는 "올해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 속에 봉사자들도 늘어 수월했고, 트리를 보며 행복해할 성도들 모습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했다"고 했다.

이날 점등식은 따뜻한 날씨 속에 진행됐으며 만민 TV 위성방송, 인터넷 TV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24, 25일에는 만민 TV 위성방송으로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알려주세요

기사 실어드리겠습니다 만민뉴스는 교회 구성구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식을 빠짐없이 취재하여 보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성도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분은 언제나 만민뉴스에 알려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취재하여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만민뉴스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만민뉴스 기사제보 안내

- 알려주실 내용
 - 교회(지교회 포함), 부속기관, 선교회 등 모집 안내
 - 교회(지교회 포함), 부서에서 하는 크고 작은 행사
 - 성도 본인 또는 잘 알고 있는 성도의 미담, 간증 등 신앙체험기
 - 우리 교회와 관련하여 지역 언론, 인터넷, 방송 등에 보도된 사례
- 알려주시는 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 제보자 이름, 연락처, 소속 교회
- 알려주시는 때
 - 언제나 좋습니다
- 알려주실 곳
 - e-mail : news@manminnews.com
 - 전화 : 만민뉴스 편집국 신문팀 070-8240-5612~4, 010-7371-2073

세 가지 선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옆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 2:10~11)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마다 지키는 큰 절기 중의 하나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2천여년 전, 온 인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의 탄생을 계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던 것입니다(마 2:11).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선물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황금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황금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귀금속 중의 하나로서 부와 재물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6:21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황금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그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42을 보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하여 두 렙돈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가족의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경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라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으니 이 양식은 가족의 생명줄과 같았지요. 그런데 이 귀한 양식을 엘리야에게 십자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이처럼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요,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둘째로,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유향은 좋은 냄새를 풍기며 악취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유향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기에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대로 범사가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물론 황금을 예물로 드린 사람처럼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사람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하고 이로 인해 더욱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행함을 보실 뿐 아니라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므로 무엇보다 마음의 향기를 흠향하십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 버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향을 예물로 드림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이요, 생명이라도 가까워하지 않을 중심인 것입니다.

셋째로, 몰약은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부패를 막아 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함없이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을 드리는 것을 뜻하지요. 한 번 주님을 만나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다면, 은혜받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변함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마음이 되려면 먼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의 모양이 남아 있어 감정이 나고 변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유익을 좇아 변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먼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되 마음의 할례를 통해 비진리를 모두 벗어 버리고 진리로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혹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준다 해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한 설령 자녀가 부모를 위해 생명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원망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늘 우리 곁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옳은 길로 행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주님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맞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 참된 선물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시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www.manmin.org)에서 '설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신

우림북 '사랑의 책 선물하기' 행사 선착순 1,000명에게 '천국 열쇠' 증정



성탄을 맞아 가족과 친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책 선물은 어떨까. 우림북이 주관하는 '사랑의 책 선물하기' 행사가 12월 20일부터 2010년 1월 9일까지 21일간 열린다. 우리 교회 서점에

서 2만 원 이상 책을 구입하는 성도에게는 선물하는 곳까지 무료로 배송해 주는 택배서비스다. 책을 구입한 후 배송지 양식을 작성해 책과 함께 서점에 비치된 배송박스에 넣으면 다음날 발송된다(서점 02-818-7425~6).

또한 12월 24일부터 교보문고 전국 매장, 종로 영풍문고, 종로 반디앤루니스, 을지로 북스리브로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구입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천국 열쇠' 휴대폰 고리를 증정한다(우림북 02-837-7632).

성극 '예수 그리스도' 공연

오는 12월 24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성탄 전야예배(설교 이수진 목사)를 드린다. 설교 후에는 김성재 전도사의 사회로 '예수 그리스도' 공연이 약 40분간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까지의 과정을, 2부는 주님 탄생의 기쁨을 찬양과 무용으로 구성했다. 예능위원회 소속 할렐루야선교단, 파워워십팀, 빛의소리중창단, 열정팀, 흰돌성가대 등이 출연하고 닥시 오케스트라 등이 연주를 담당한다.

VIP 우리 교회 방문한 해외목회자들

러시아연합성결교회총회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담임)와 핀란드, 러시아, 벨로루시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3명이 12월 11일 금요일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사역의 모델로 삼기 위해 방문했다. 각종 공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해 성령 충만한 예배와 기도현장을 체험하고 전남 무안 소재 권능의 무안 단물터 등을 방문한 뒤 16일 출국했다.



왼쪽부터 벨로루시 은혜교회 담임 세칸척 나움, 핀란드 구원 의방주교회 담임 표트르 포타펜코, 러시아연합성결교회총회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러시아 성베드로교회 담임 유리 마몬토브 목사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결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셉성결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나엘월가기도회	9:00 P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한국은 믿음의 고향, 만민중앙교회는 믿음의 성지”

우리 교회에 믿음의 등지를 든 해외교구 성도들 이야기

주일 대예배를 마치고 외국인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임장소로 모여든다. 그들은 해외교구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한 주간 있었던 일들로 대화의 꽃을 피운다. 다른 만민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삶에도 응답과 축복이 넘쳐난다.

대부분이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온 그들은 전문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콩고민주공화국 키토코 기나부디 집사(남 41세)는 킨샤사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다. 2000년 7월, 한국에 온 그는 첫 주일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 뻘뻘한 일과 중에도 2002년에는 매주일 해외교구 주보에 실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설교를 요약했고 이후에는 설교를 불어로 통역했다. 당회장님 저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번역을 계기로 2006년 2월부터는 번역국에서 근무하게 됐다. 2002년 결혼한 그는 가족으로 아내 자젤 키토코 성도와 두 자녀가 있다.

파키스탄 아셀나지르 집사(남 43세) 역시 5개국어를 구사하는 엘리트이다. 1999년 한국에 온 그는 여러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 우리 교회에 오면서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고, 지금은 만민 TV에서 우르드어 웹 사이트 번역 업무를 하고 있다. 얼마 전 파키스탄에 계신 그의 어머니에게 오른쪽 편마비가 왔었다. 거동은 물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녀는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받았다.

몽골의 살롱가 자매(여 28세)는 한국말이 유창해서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을 했다. 그런데 주일에도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주일을 쉬는 조건으로 50만 원이나 월급이 인하됐지만 주일 성수할 수 있음에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직장을 그녀에게 허락하셨고, 많은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

또한 버지니아 성도(여 36세)는 프랑스에서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스카트 성도(남 34세)는 파키스탄에서 협심증으로 위독한 어머니를 위해 사진 위에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깨끗이 치료되었다. 몽골의 양

흐바야르 집사(남 31세)는 당회장님 설교 테이프로 말씀을 듣고 환자기도를 받은 후 폐결핵이 치료되었다.

주한 외교관도 많이 전도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고 승진의 축복을 받았다.

특히 현재 스웨덴 주재 콩고대사관의 앙리 대리대사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주한 콩고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할 때였다. 그는 진급을 놓고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은 뒤, 스웨덴 주재 콩고대사관

대리대사로 발령된 것이다. 워낙 엄격한 절차로 계속 아그레망(특정한 사람을 외교 사절로 임명함에 있어, 파견될 상대국에서 사전에 동의하는 의사표시)을 주지 않은 터라 콩고 외무부에서도 기적이라고 말했다.

주한 온두라스 우마냐 대사는 본국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철심을 박아 고정하는 수술까지 받아 걷기가 불편했다. 하지만 당회장님 기도를 받은 뒤 지금은 편안하게 잘 걷는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주재 콩고대사관 예메 영사, 프랑스 주재 코트디부아르대사관 타노 영사,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주한 코트디부아르 다니엘 참사관, 주한 나이지리아 아킨올라 공사 등이 치료와 승진의 축복을 받았다. 또한 해외에 있는 그들 가족도 당회장님 기도로 갖가지 축복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각국의 정부 관료나 국민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예배드리고 있다.



지난 13일 주일 대예배 후, 해외교구 성도들이 만민뉴스를 위해 포즈를 취했다.

우리 교회 해외교구는

◆ 16개국 성도, 7개 구역으로 관리

해외교구는 1998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외국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정식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온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현재는 16개국 성도들이 머물고 있다.

이들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국내 체류 기간이 길지 않다. 외교관, 치과의사, 변호사, 근로자, 영어 강사, 엑스트라 배우, 요리사, 가수, 학생, 오케스트라 단원, 항공사 가장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7개 구역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교구장 한금주 전도사, 부교구장 오인숙 전도사, 부장으로 빈성건, 김영식 장로가 섬기고 있다.

1구역은 불어권 아프리카(콩고, 코트디부아르 등), 2구역은 영어권 아프리카(가

나, 나이지리아, 케냐, 카메룬 등), 3구역은 필리핀, 4구역은 몽골, 5구역은 동남·서남 아시아(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러시아 등), 6구역은 중남미(코스타리카, 페루, 아르헨티나 등), 7구역은 영어권(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각 구역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역장과 부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영어권을 제외한 5개 구역에는 현지어 심방 통역자가 있다.

◆ 말씀 양육, 일꾼 양성, 실생활에 도움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전체가 모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개인 심방을 통해 이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다. 직장 관계로 시간이 여의치 않은 성도를 제외하고는 심방을 통해 ‘심자의 도’, ‘믿음의 분량’으로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또한 만민국제신학교와

만민성서아카데미, 만민세계선교훈련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말씀 무장한 일꾼들 가운데 선교사가 배출되어 현재 케냐, 필리핀, 일본, 몽골,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 GCN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많은 언어를 필요로 하고 있어 예배 통역 봉사도 하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곤란한 일을 겪을 때 직접 문제를 중재·해결하며, 아직 한국이 낯선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필품 구입, 기본적인 생활 정보를 제공, 출산 시 통역 등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직장을 잃어 갈 곳이 없는 성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미션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다.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더욱 감회가 새로운 사람이 있다. 바로 김삼손 집사(55. 경기 광명)이다. 그는 지금도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한다.

“주님!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아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천국 소망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김 집사는 1989년,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다. 하지만 그는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억지로 예배에만 드리고 도박판으로 향했다. 결국 운영하던 공장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전세방을 전전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1994년 12월경, 마침내 그는 가출해 5년 동안 떠돌이로 살았다. 주로 노름판에서 개평을 얻어먹고 살았다. 어느 날, 그는 도박판에서 심한 모욕을 당했다. 아내가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명분이 없었다.

그러던 1999년 5월, 우리 교회에 대한 MBC의 편과 왜곡 방송 사건을 접했다. 문득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고통받

“나는 돌아온 탕자, 남은 인생 섬기며 살래요”

김삼손 집사 (14-1교구, 3-3남선교회)



김삼손 집사가 환자 성도들이 예배드리러는 6성전에서 할렐루야봉사대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을 가족이 생각났다. 마침내 가족 품에 돌아갈 명분이 생긴 것이다. 그의 아내 강인옥 권사도 남편에 대한 미움보다는 다시 돌아온 것에 매우 고마워했다. 당회장님께서도 그에게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다. 사방에서 조여 오는 생활고는 김 집사를 그냥 두지 않았다. 월 새 없이 들어가는 생활비와 두 딸의 학비 등이 려다 할 직장이 없던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고문과도 같았다.

2000년 여름, 결국 1년 만에 또 가출한 그는 난생처음 택시 운전을 했다. 어찌하든 돈을 벌어 집에 돌아올 생각이었다. 물론 교회도 나

가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 호락하지 않았다. 무진 고생 끝에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지만 남은 것은 질병뿐이었다. 위장에 구멍이 뚫린 위천공이라는 병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만 했다.

이 일을 겪고 나니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는 변화되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도 그를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께서는 통회자복의 은혜도 여러 번 주셨다. 차츰 화평한 가정이 되어 갔다. 그

붕급날 80만 원을 안겨주지 않네는 감격했다.

“여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섬읍시다”

그들 부부는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드리기로 했다. 아울러, 교회 안의 분야 분야를 돌아보며 봉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김 집사는 우리 교회 김중권 집사의 도움으로 일산 상가 건물관리소장이 됐다. 하지만 그 분야에 경험이 없으니 힘들었다. 그만

두려고 할 때 당회장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바로 겸손과 섬김이었다. 그는 매사에 입주자들에게 공손히 대했다. 그럴 때에 입주자들은 오히려 미안해하며 도와주었다. 하나 둘 관리소장으로서의 자질을 키워갔더니 1년 만에 건물 하나를 추가로 관리하는 축복이 임했다.

김 집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당회장님의 사랑임을 고백한다. 두 번씩이나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그를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었다. 그는 무엇이든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다. 그 때 생각한 것이 할렐루야봉사사였다.

“몸이 불편한 성도님에게 묻은 대변을 닦을 때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니 감사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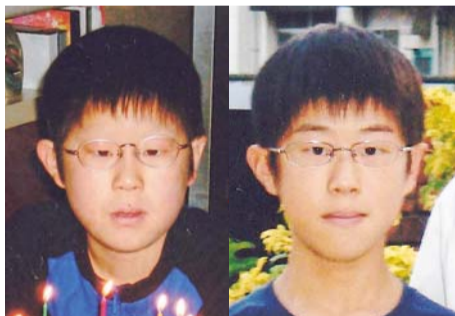
그는 3년째 주일마다 휠체어를 의존해야만 하는 환자 성도를 돕고 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휠체어 봉사를 하며 환자들을 돕고 있는 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저를 용서하고 새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주님 사랑에 눈물짓곤 합니다. 저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그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한다.

“다 빠진 눈썹이 새롭게 났어요”

나카노 쇼헤이 (일본 오사카 만민교회, 중)



리를 길게 해 순간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 때에는 사정이 달랐다. 머리를 짧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평소 오사카 만민교회 김건태 목사님과 이창미 전도사님은 나의 애로를 잘 아셨다. 그래서 매 주일 교회에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치료 간증을 통해 믿음을 심어 주셨다.

올해 6월 어느 날이었다. 옆 반 아이가 눈썹이 없다고 놀리는 것이었다. 나는 상한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유달리 힘이 없어 보이는 나를 보고 엄마는 물으셨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눈썹이 없다고 옆 반 애가 놀렸어요”
엄마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이번 일을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나는 선뜻 마음이 나가지 않았지만 이내 마음을 돌려 믿음의 고백을 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그 아이에게도 감사합니다” 했다.

2주 후였다. 심한 가려움증이 사라지면서 왼쪽 눈썹이 3분에 1 정도 나기 시작했다. 틈나는 대로 이창미 전도사님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다.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 눈썹에 이어 오른쪽 눈썹도 나기 시작했다. 빠진 눈썹이 나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답수룩하게 자랐다. 이러한 체험은 내게 큰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9번지 백성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사정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상만민교회 ☎031652-9981, 016-278-7712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6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시흥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양동 60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리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산안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강령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상리 905-1 ☎055848-9107, 010-5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토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230-3 ☎063853-0675, 010-7777-707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8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0-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89-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곶동 509-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고평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88-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6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갈매동 349-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0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아현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0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1 ☎031840-2906, 019-251-3149